

## 복음통일을 위한 주간 기도 자료 Vol. 7.

### 피해자의 회개

‘피해자의 회개’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향해 품은 미움, 증오, 그리고 보복심을 비우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회개를 말합니다. 세상은 가해자의 회개를 강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피해자의 회개도 중요합니다.

### 정세 이야기

근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한국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막말의 이면에는 항일투쟁과 6·25전쟁, 오랜 남북분단과 북미 갈등 가운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북한의 통치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은 적에 대한 증오를 어려서부터 증폭시킵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비속어를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적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적을 ‘놈’으로 부릅니다. 소학교와 중학교에 가서는 ‘미국 놈 대가리’, ‘왜놈의 모가지’ 등의 원색적 표현을 통해 외부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내재화시킵니다.

북한은 막말뿐만 아니라 포탄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금요일 오후, 북한은 남한 지역을 향해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장산곶과 등산곶 일대에서 발사된 약 200여 발의 포탄은 남하하여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더 많은 4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행위로 인해 해상 완충구역이 없어진 것과 어떠한 도발에도 항전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포탄을 퍼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 사회의 내부 결속과 통제를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남한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북한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당과 군의 지도부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남한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고 발전된 남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증오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 기도제목

하나님! 북한의 험한 말과 포탄이 남한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증오에 갇힌 북한의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미움과 보복을 넘어 한반도의 건강한 미래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오랜 분단을 평화적 복음통일로 바꾸는 새로운 통일정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와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목을 주시며,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보내온 긴급한 기도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3국에서 구출되어 현재 해외 예수제자훈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고 있는 20여 명의 탈북자가 북한선교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로 구출되어야 할 10명의 탈북자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늘 재정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마 6:33).

### 말씀 나눔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이 주는 기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바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에서 온 악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를 향한 미움과 보복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쉽지만, 정작 우리 안의 증오심을 비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겪는 고통을 당연시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거나 마음이 청결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자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해자를 향해 품은 미움과 증오, 보복의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와야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하지 않고 용서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나쁜 짓을 계속 행하여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해자의 운명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먼저 분절한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관계의 파괴를 겪고 피해자의 자리에 서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해자인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가해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한반도 곳곳에 흘러가기를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아 신음하는 이들에게 가난하고 청결한 심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갈등을 겪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먼저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한국 땅의 모든 피해자가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와 보복이 화산의 용암처럼 뿜어져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나 가정, 교회, 기업, 사회 공공영역에서 가해자에게 당한 고통과 상처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안에 있는 위정자들이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북한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북한은 자신을 피해자라 생각한 채 ‘자폐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증오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북한 지도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회자복(痛悔自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그 누구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자 복입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녘땅에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 신학적 관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피해자에게 ‘청결한 마음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청결한 마음의 정치는 ‘회개’입니다.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회개입니다. 억압받는 피해자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 죄로 남을 괴롭히는 이들뿐 아니라 억압받는 희생자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셨다.<sup>1)</sup>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회개가 새로운 소망, 억압하는 이들에게는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sup>2)</sup>한다. 비인간적인 증오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전망에 걸맞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sup>3)</sup>

가해자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칫 피해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관행이라는 유혹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마음속에 확립하는 것입니다.<sup>4)</sup> 회개는 피해자에게 능력을 주고, 가해자에게서 그의 능력을 빼앗습니다. 회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방하거나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회개는 피해자를 인간화(humanization)합니다.<sup>5)</sup> 피해자의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 형성된 사람', '사회를 변혁시키는 참된 기획에 동참할 능력을 갖춘 화해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됩니다.<sup>6)</sup>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179.

2) 위의 책, 179.

3) 위의 책, 180.

4) 위의 책, 183.

5) 위의 책, 183.

6) 위의 책, 186.